

가해 기초자료

연중 제28주일

혼인 잔치의 예복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이사야의 혼인 잔치

성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며,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신랑,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신부라고 여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이를 찾아가는 불륜이기 때문.

“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리라. (이사 25,6)

”

'주님의 날'은 하느님께서서 우상과의 불륜으로 인해 쫓아내셨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찾아가시는 날이며,
이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잔치날이 될 것이다.

'주님의 날'이 도래한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곧, 아시리아는 결국 예루살렘 점령에 실패하고
이로써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해방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혼인 잔치

임금은 하느님 아버지이시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부는 새 계약으로 탄생한 교회이다.

“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로
불러오게 하였다. (마태 22,3)

”

초대받은 이들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그들은 종들(예언자들)이 전하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
그 잔치가 자신들을 위한 잔치였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노.
...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마태 22,4)

”

잔칫상을 '이미' 차렸다는 말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날이
이미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언자들뿐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마저도 죽인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을 위한 축제의 날, 구원의 날은 진노의 날로 돌변하게 된다.

“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마태 22,9)

”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게로 불러나오게 됨.
초대에는 어떤 조건도 없으며, 누구나 하느님의 초대를 받는다.

“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마태 22,12)

”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혼인 잔치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미사를 통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함으로써
혼인 잔치에 맞갖은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두려움을 없애 주실 것이다

혹시 '나는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바깥 어둠 속에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오늘 2독서는 큰 위안을 준다.

“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명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필리 4,19)

”